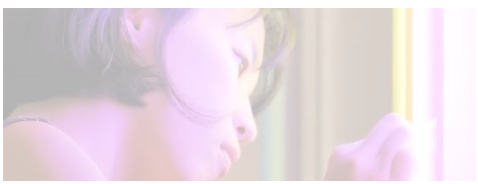
덩어리들 The Deongeori



Contact : lovewookim@gmail.com
Official website : www.wookim.org
Instagram : wookim_studio
Tel : +0032 4 8645 4247

김 민 우

WOO KIM

4개의 덩어리들 그리고 The Four Deongeori And
Acrylic on paper, 52.5 x 52.5cm, 2019

김민우는 1982년 서울 출생으로 KAIST를 졸업 후 프랑스 렌느 보자르 미술 대학에서 현대 미술 학위를 받고 브뤼셀 왕립 예술 학교에서 회화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는 작가로 2019년에는 제노바 비엔날레에 출전한는 등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에서는 2019년 9월 모교인 KAIST 초대로 개인전 “덩어리들”를 열어 예술과 과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현재 작가는 작업실이 있는 벨기에를 기점으로 유럽과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작가 노트]

덩어리들 The Deongeori

나는 2019년 첫번째 개인전 «덩어리들 The Deongeori»[1]에서 관찰되는 모든 세계는 하나 혹은 여러개의 화면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화면은 나에게 움직이는 대상이 표현된 일정한 거리에 있는 평면의 무엇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대상들의 움직임을 영상이 아닌 평면 회화를 통해 구현했는데[2] 그 이유는 영상 또한 일종의 화면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영상이 움직임을 표현한 시퀀스들의 집합이라면 한 개의 화면에서도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진으로 포착된 장면과는 차이가 있었다.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순간의 장면이 아닌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화면 자체였다.

나는 덩어리들로 화면을 구성한다. 응시된 화면을 캔버스라는 매체에 재현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상상에 의한 것이다. 실제 화면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애초에 과거를 혹은 어떠한 기억들을 수축시키고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새로이 나타나려면 이전의 것은 흔적으로 혹은 기억으로, 즉 과거의 무엇으로 되어 사라질 때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물음으로서 혹은 응시되는 것 자체로 보전한다면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덩어리 작업은 그것을 평면 회화라는 화면 속에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덩어리들은 결국 또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응시 자체 혹은 또 다른 질문인 샘이다. 따라서 나로부터 만들어진 화면은 이 세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떠한 해답이 아니다. 화면은 내가 이 세계를 응시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자 물음인 동시에 호기심에 대한 표출이다. 어쩌면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음을 그리하여 계속 묻고 있음을, 다시 말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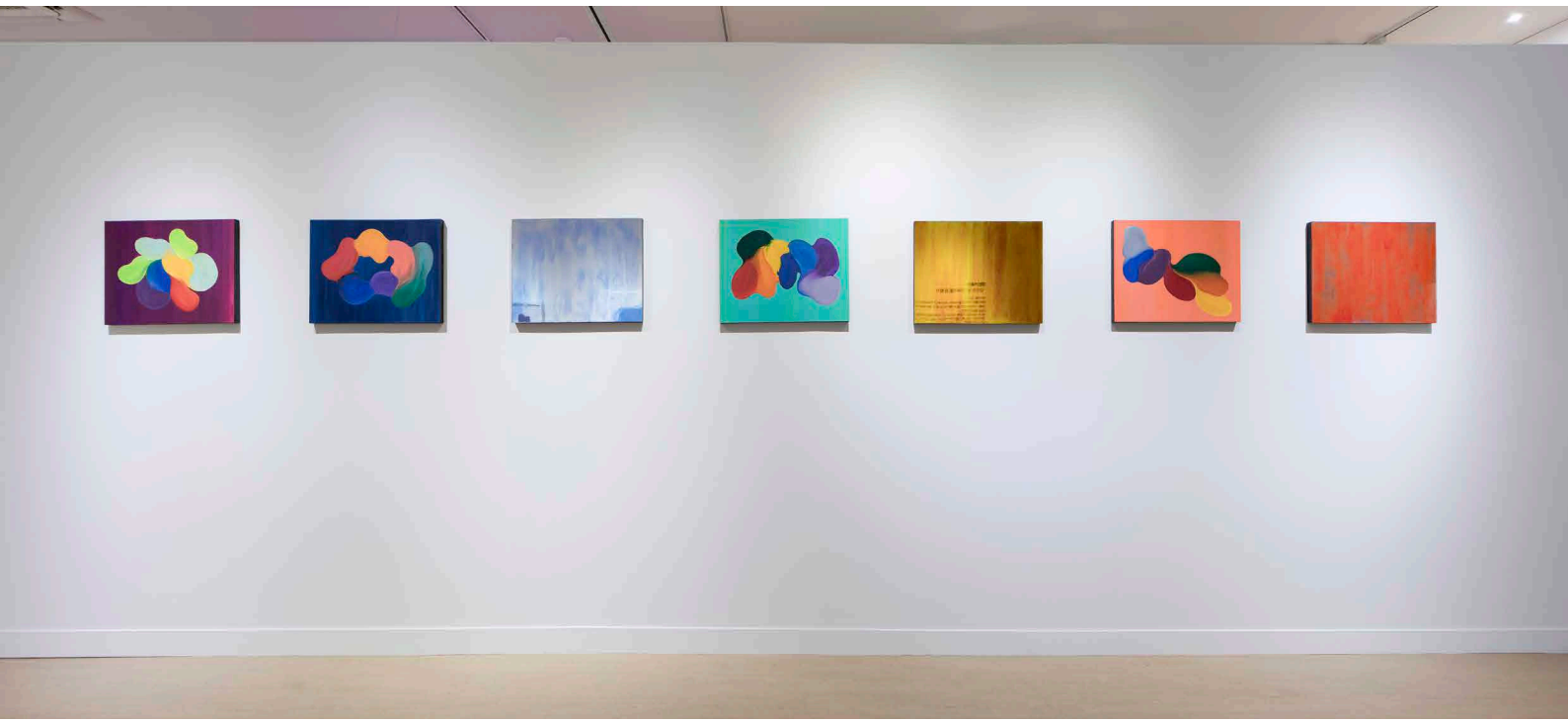
나는 이 같은 화면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다. 이는 "스크린" 작업으로 이어지며 «덩어리들 The Deongeori» 전에서 이 중 일부가 전시되기도 했다. 스크린 작업은 내가 관찰하는 화면의 범위를 실제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크린 얼룩 Screen Stain"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세계에서의 관찰 대상이 덩어리들이었다면, 스크린 얼국들은 가상 세계, 즉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의 디지털 매체에서 관찰되는 대상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덩어리와 스크린 얼룩은 내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관찰되는 대상들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나는 이들을 퉁해 내가 응시하는 세계를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결론적으로 회화라는 매체가 화면을 표현하는 것에대한 타당성을 찾을 것이며,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시도(매체)가 적합한지에 대한 해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생각이다.

김민우, 2019.11.12

[1]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카이스트 비전관에서 이뤄졌다. 전시 인터뷰는 유트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덩어리들] 김민우 아티스트 인터뷰 : https://www.youtube.com/watch?v=ucCaF7NM16A

[2] 2013 - 2016년에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을 통해 순간성을 표현하는 작업을 주로 했다. 참고: 김민우 공식 사이트 : http://www.wookim.org



안녕하세요 [An-nyeong-ha-se-yo]:
Collision #1, Red, 41 x 53cm, alkyd-based color on mirror
Collision #2, Orange, 41 x 53cm, oil and acrylic on linen panel
Collision #3, Yellow, 41 x 53cm, alkyd-based color on mirror
Collision #4, Green, 41 x 53cm, oil and acrylic on linen panel
Collision #5, Blue, 41 x 53cm, alkyd-based color on mirror
Collision #6, Indigo, 41 x 53cm, oil and acrylic on linen panel
Collision #7, Purple, 41 x 53cm, oil and acrylic on linen pane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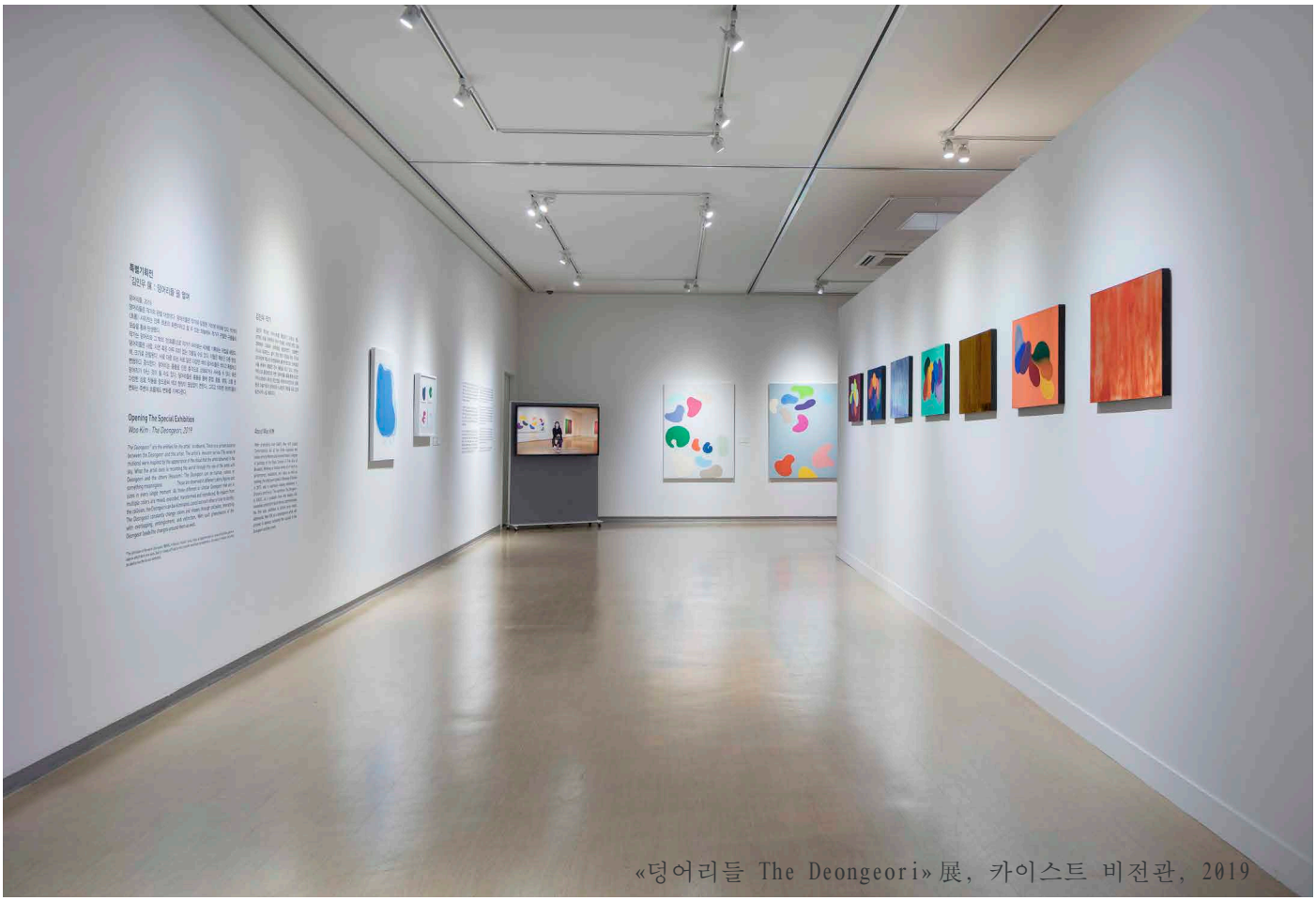
Collision #4, Green
41 x 53 cm
Oil and acrylic on linen panel
2019

연작 안녕하세요(2019)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는 예의와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에게 건네는 인사의 말이다. 인사는 사람을 만나 가장 먼저 하는 행위로 인사를 함으로써 서로를 인지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설적이게도 인사의 행위에서 폭력성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모든 충돌이 인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사는 타자와의 경계를 허문다. 허물어진 경계는 경계를 넘어 타자의 영역으로 침범과 위반을 가능하게하고 그 곳에서는 충돌이 일어난다. 인사는 이러한 충돌과 위반에 대한 최초의 선언인 것이다.

위반은 기존에 유지되어온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래 있던 것과 새로 들어 온 것 사이에 충돌을 야기시킨다. 충돌은 만남, 소통, 대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방해, 침범, 침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모든 충돌적인 사건들에서 일종의 폭력성(violence)을 발견한다. 가령 외부의 어떠한 자극도 없는 평화로운 하루 중 무심코 받는 인사는 당혹스럽거나 불편하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한 관점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오래 거주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어로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bonjour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쓰는 인사말이다. 불어권 국가에서는 보통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사를 주고 받기도 한다. 특히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문화에서, 건네 오는 인사를 피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심리적으로 충분히 가깝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대와도 인사를 나누는 문화에서 나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거울은 나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매일 거울로 나를 만난다. 거울에 있는 나를 보고 나는 거울 속의 나와 눈을 마주친다. 그리고 인사를 나눈다. 인사를 나눔으로써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타자가 되며, 나와 그 사이에는 경계가 생긴다. 거울은 일종의 화면으로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타자화된 나이다. 그리고 거울은 타자화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공간이다. 타자가 된 나와의 만남은 충돌을 야기한다. 이것은 매일 겪는 자아와의 충돌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매일 하는 것이다.

Collision #5, Blue
41 x 53 cm
Alkyd-based color on mirror
2019



«덩어리들 The Deongeori» 展, 카이스트 비전관, 2019

진동하는 파란 덩어리, acrylic on canvas, 80.6 x 59.4 cm, 2019

당신과 친해지는 법
The Remainder of the Remainder
Acrylic on wood panel
116.8cm x 218cm
2019

충돌은 각각의 덩어리들이 스스로 진동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진동하는 파란 덩어리(2019)는 원초적 형질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표면 장력으로 엉겨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흐름은 이렇게 진동하는 덩어리들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그 흐름 속에서 덩어리가 드러내는 모습은 순간적이다. 그리고 흐름의 변화는 연속적이고,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종류의 행복, acrylic on canvas, 100 x 120cm, 2019

웅성거림, acrylic on canvas, 100 x 120cm, 2019

웅성거림, acrylic on canvas, 130 x 97cm, 2019

«덩어리들 The Deongeori» 展, 카이스트 비전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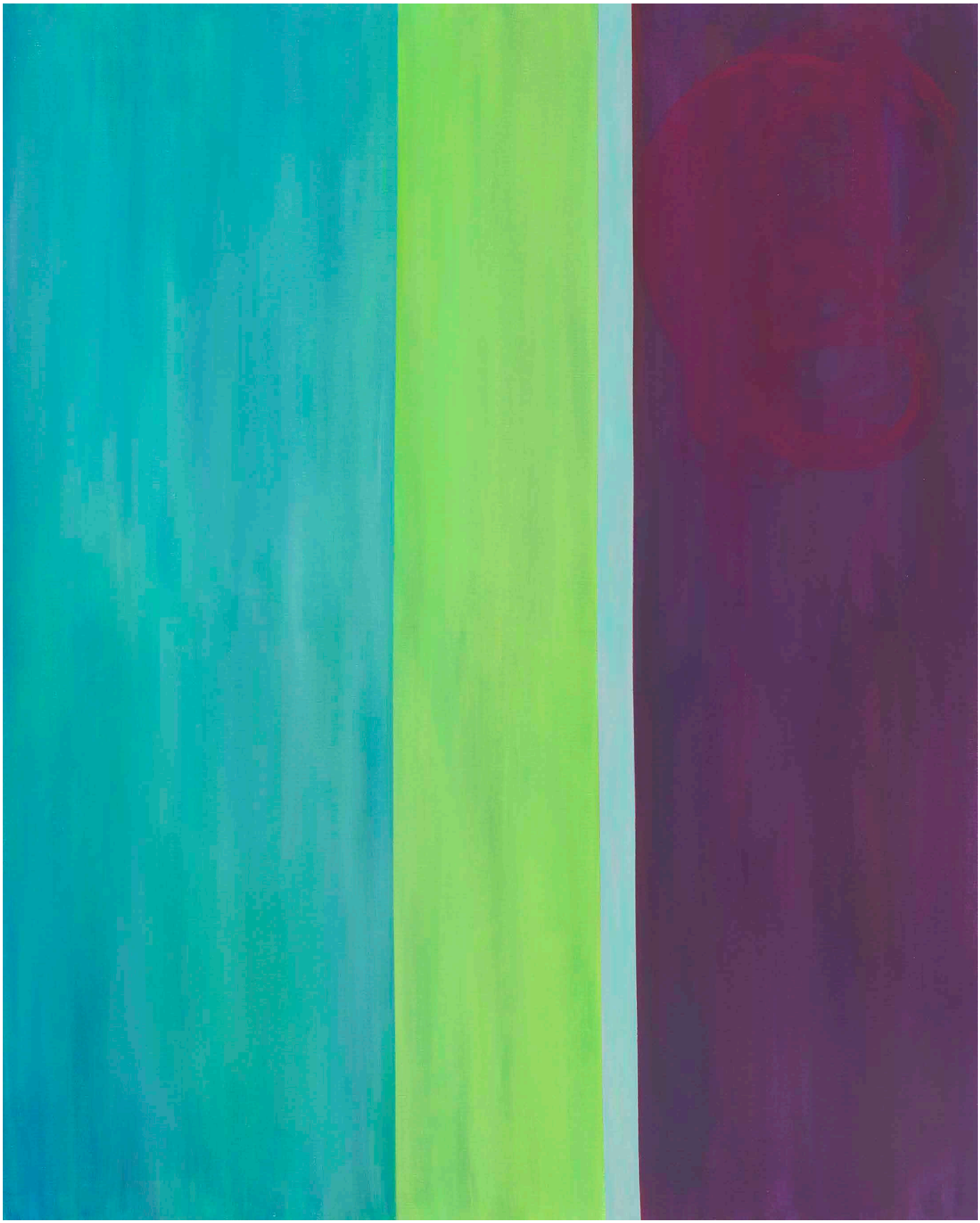
Screen Stain :我想请您吃饭, 70 x 40 x 7.5cm, LED screen, 2019

Screen Stain : 我想请您吃饭 (2019)은 안산에 직접 거주하며 진행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안산 다문화 거리에 즐비한 다국적 국기와 언어로 쓰여진 간판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만들었다. 간판은 외부의 것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초대장과 같은 것으로서 최대한 눈에 띄도록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화면은 관찰 대상이되기 쉽지만 지시 대상, 가령 국기와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 외의 것들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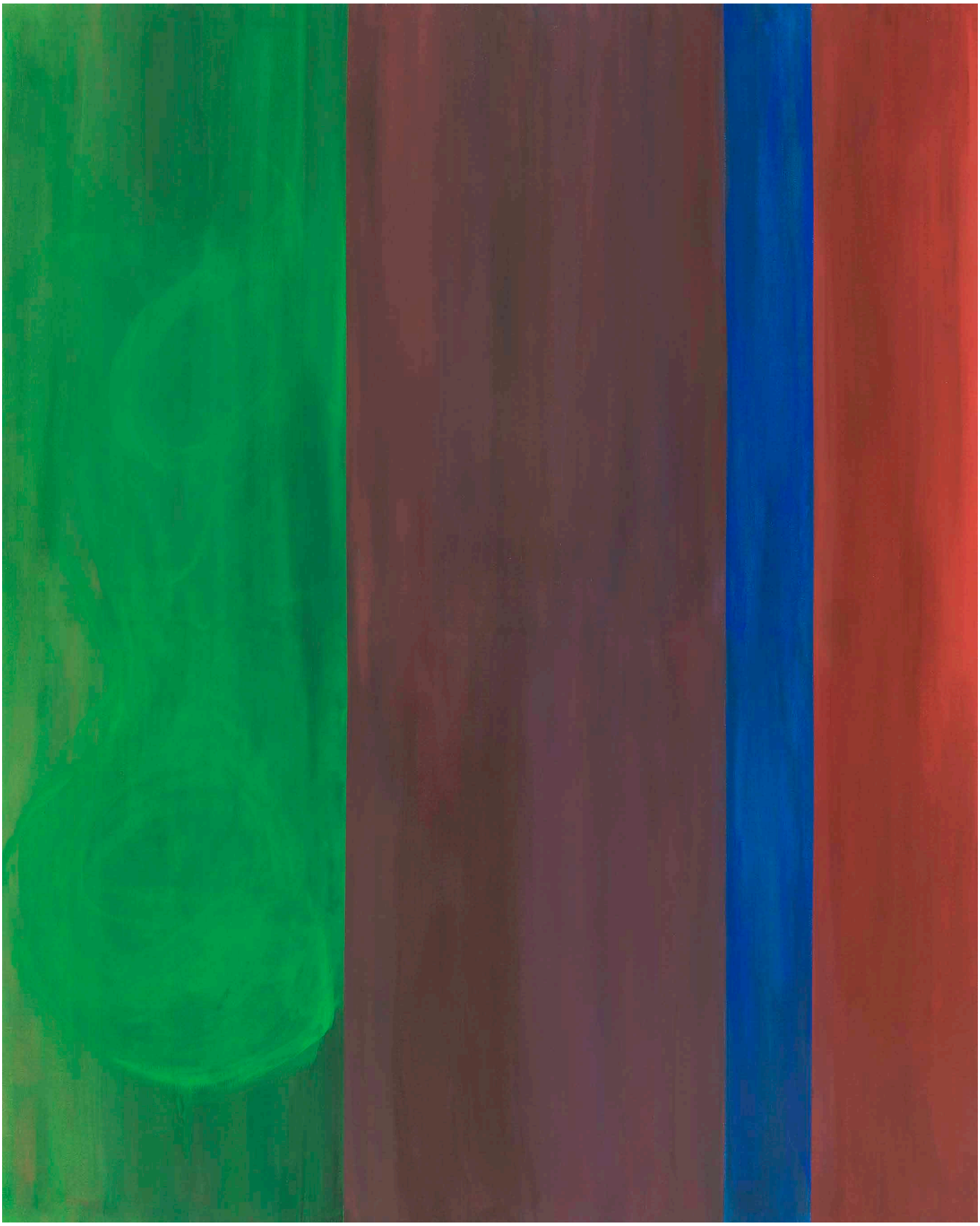
나는 최대한 언어와 상징적인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좀 더 포용적인 간판, 즉 화면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 안의 얼룩을 통해 단순한 LED 상자가 아닌 화면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했다. 스크린 속의 덩어리라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덩어리 혹은 얼룩은 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我想请您吃饭 는 중국어로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으로 언어의 배타적 특성을 작품 제목을 통해 표현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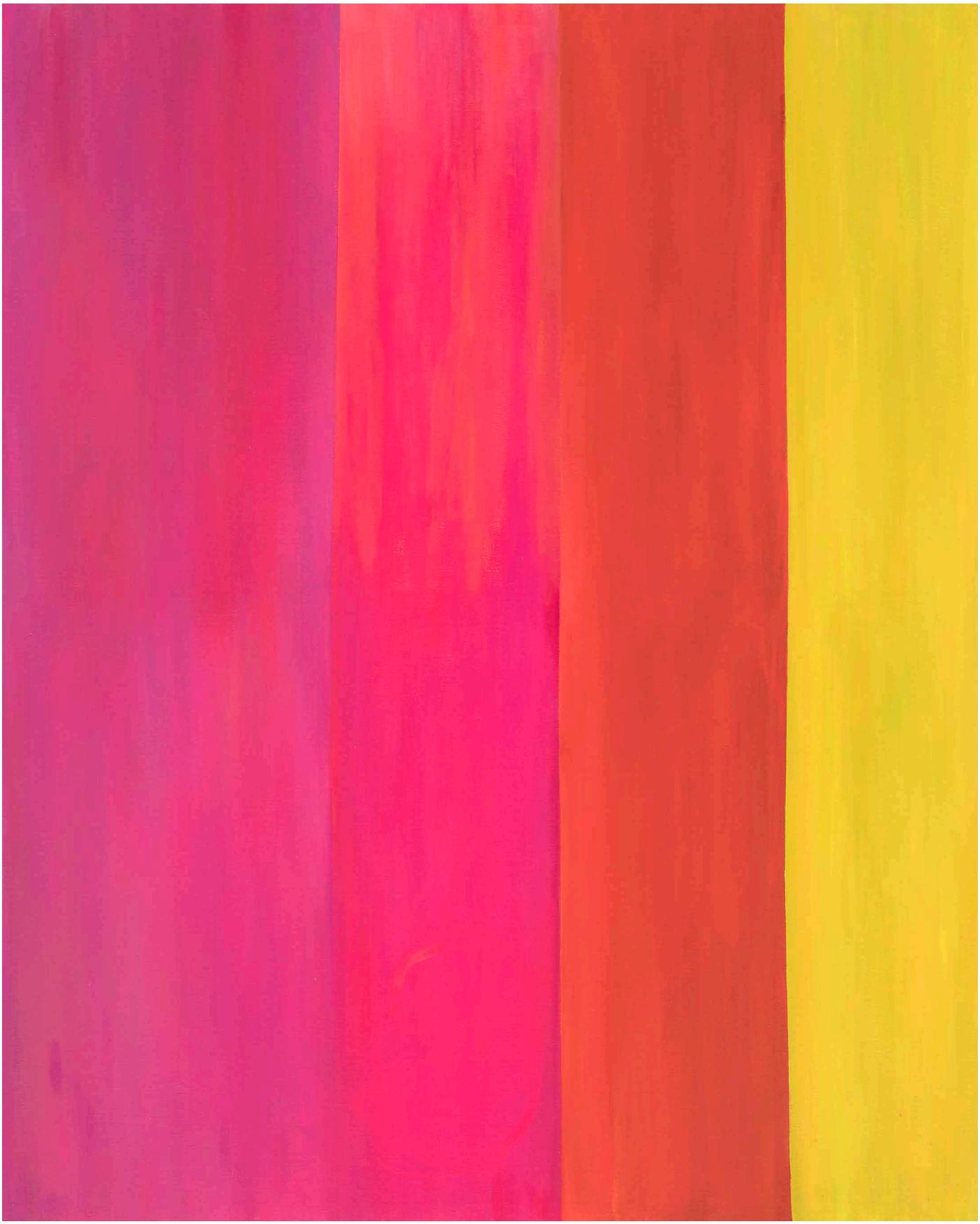
2019년 8월 3일 안산 다문화 거리 촬영 영상 (참조 https://youtu.be/usiTwny5br4)



Screen I, acrylic on canvas, 162 x 130cm, 2019



Screen II, acrylic on canvas, 162 x 130cm, 2019



Screen III, acrylic on canvas, 162 x 130cm, 2019

더 많은 작업은 wookim.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력]

1999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2005 카이스트 전산학과 학부 졸업

2007 파리 공학 계열 그랑제꼴 파리테크 환경공학과 석사 졸업

2010 파리 아카데미 그랑 쇼미에르 (인체 소묘)

2013 헨느 보자르 미술 대학교 조형예술학 D.N.A.P 졸업

2016 브뤼셀 왕립 미술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개인전]

2019 덩어리들, 특별기획전, KAIST 비전관, 대전, 대한민국

[주요 단체전]

2019 네 개의 방, 그어떤 갤러리, 청주, 대한민국

Union Art Fair, S Factory, 서울, 대한민국

Form 국제전, Cica 미술관, 김포, 대한민국

양자의 세계, 이화여대 연구협력관, 서울, 대한민국

Biennale di Genova 2019, 제노아, 이탈리아

ARTcaf, Hôte Gallery, 브뤼셀, 벨기에

2018 Carte de visite – ARTopenKUNST, 브뤼셀, 벨기에

2017 : “SEWOL”, Kuumba, 브뤼셀, 벨기에

« Au–delà de l’ Horizon », Kuumba, 브뤼셀, 벨기에

2016 « Now Here », LaVallée, 브뤼셀, 벨기에

Concours d’ arts plastiques et visuels de Nivelles, Waux–Hall, 니벨, 벨기에

« Perles du matin calme », Maison de l’ Erdre – île de Versailles, 낭트, 프랑스

Carte de visite – ARTopenKUNST, 브뤼셀, 벨기에

2015 « Nothing is everything », atelier Space 8, 브뤼셀, 프랑스

« Speaking Sewol », KU Louven, 루벤, 벨기에

2014 Atelier SI–NON, 브뤼셀, 벨기에

2013 EESAB site Rennes, 헨느, 프랑스

« 4 Gif 4 Bis », Bibliothèque municipale de Rennes, 헨느, 프랑스

[기타 활동]

2019 ART1 아티커버리 Top 9 선정

Biennale Di Geonoa 2019 참여 작가

2016 벨기에 브뤼셀 시 주관 Brueghel’ Art Market 선발 아티스트

벨기에 니벨 시 주관 공모전 Concours d’ arts plastiques et visuels de Nivelles

최종 20인 작가 선정

2013 비영리단체 엠트리 주관 케냐 몸바사 아트 프로젝트 Brush With Hope 아티스트